

임성한 작가의 '손짓'

9월 주말드라마 방영

‘인어아가씨’와 ‘하늘이시여’를 만든 임성한 작가의 MBC 주말드라마 ‘손짓’(가제)이 9월부터 방송된다.

24일 MBC 편성국에 따르면 임 작가의 ‘손짓’은 주말드라마 ‘친구, 우리들의 전설’의 후속으로 9월5일부터 방송되며 연출은 아침드라마 ‘흔들리지마’의 백호민 PD가 맡는다.

남자 주인공으로 ‘하늘이시여’의 이태곤이 확정됐으며 중견 탤런트 한혜숙과 박근형 등도 출연할 예정이다.

MBC 편성국은 “‘손짓’은 ‘막장 드라마’가 아닌 밝고 경쾌한 ‘힐 드라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찬란한 유산’ 인기폭발

이·승·기

지난 21일은 이승기(22)에게 아마 최고의 일요일이 아니었을까 싶다. 오후 7시대 방송된 KBS 2TV ‘해피선데이-1박2일’이 시청률 30%를 넘어선 데 이어, 3시간 뒤 방송된 SBS TV 드라마 ‘찬란한 유산’의 시청률은 35%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사실 ‘찬란한 유산’ 초반에만 해도 그는 연기력 논란에 휩싸였다. “1박2일의 인기를 업고 캐스팅됐다”, “1박2일의 ‘허당’과 비슷하다”는 등의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그는 이를 3~4회 만에 극복하는 데 성공,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에게 더이상 ‘허당’이 아닌 ‘선우환’으로 우뚝 일어섰다.

“멜로의 힘이 큰 것 같아요. 환과 은성(한효주 분), 준세(배수빈)의 3각 관계가 탄력을 받으면서 시청률이 더 오른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요즘 대본을 받아보면 절로 떨려요. 감점 입일이 되니까요.”

최근 멜로 라인을 강조한 ‘찬란한 유산’은 그중에서도 뼈 빠르고 까칠하기만 했던 환이 은성에 대한 사랑에 눈을 뜨면서 갈등하고 변화가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별히 갖고 싶었던 것이 없었다”는 대사처럼 그는 모

누가 ‘허당’이라고 했나
알고 보니 ‘스마트 보이’

“노래·연기 병행...배우로서의 가능성 증명해 보고 싶다”

든 것에 심드렁했고 심지어 고등학교 시절부터 자신만을 바라본 예쁜 후배 승미(문채원)에게조차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 그런 환이 캔디형의 똑순이 은성에게 무너지고 있는 중이다. 자신도 근원을 알 수 없는 마음속의 끌림으로 그는 요즘 극심한 혼돈 상태다.

“환이는 요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고민과 갈등이 심하죠. 그런데 이번 주말 촬영할 동해 크루즈 여행을 계기로 환도 은성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멋진 모습도 보여주게 되는데, 제가 잘 소화해낼지 모르겠어요.(웃음)”

어떤 질문을 던져도 마치 준비된 듯 막힘없이 대답을 쏟아낸 이승기는 ‘허당’도 아니었고 ‘까칠남’도 아니었다. 반듯한 ‘스마트 보이’였다.

“사실 환은 처음에는 매력적인 부분을 찾아보기 어려운 캐릭터였어요. 단선적이고 특하면 화를 내는 아이였죠. 하지만, 대본에다 조미료를 치는 것이 배우의 몫이라고 생각해 이런저런 장치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귀여운 구석도 생기고 좀 부드럽게도 보이면서 환의 매력이 살아나게 된 것 같아요.”

2004년 1집을 내고 가수로 데뷔한 그는 당시 MBC TV 시트콤 ‘논스톱’에 얼굴을 내민 데 이어, 2006년 KBS 2TV ‘소난관 칠공주’를 거쳐 ‘찬란한 유산’에서 주인공을 꿰찼다.

“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하고 싶다는 생각도 못했고 소질이나 재능이 있다고 생각 못했죠. 그런데 소속사 사장님이 데뷔 때부터 ‘연젠가는 연기를 병행하게 될 것’이라며 끊임없이 연기에 대한 대비를 시키셨어요. 연기는 절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시트콤에 출연할 때는 그야말로 최악이었어요. 대본을 해석하는 능력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족할지라도 어떻게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름대로 준비를 해 조금씩 성과를 보면서 연기의 재미와 보람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는 “왜 다들 드라마를 하고 싶어하는지 알겠다”는 말로 앞으로도 계속 노래와 연기를 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가수는 무대 위에서 폭발력을 갖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배우는 가상의 드라마에서 신비스럽게 그려지면서 환상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연기가 뭔지는 여전히 모르지만, 연기가 재미있는 것만큼은 확실해요.”

“드라마 초반의 연기력 논란을 극복했다는 것이 무엇보다 뿌듯하다”는 그는 “이 드라마를 통해 ‘저 친구가 계속 연기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배우로서의 가능성을 꼭 증명해 보이고 싶다”고 힘줘 말했다. /연합뉴스

미니음반 ‘소원을 말해봐’ 낸

소·녀·시·대

“행운의 여신이 되어
지친 사람들에게
자신감 북돋을래요”



9인조 여성그룹 소녀시대는 상반기 히트곡 ‘지(Gee)’ 덕에 국민 여동생들로 떠올랐다. 고정 출연진이 있는 ‘1박2일’만 빼고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섭외돼 아홉 멤버의 얼굴과 이름을 모두 알렸다. 그 결과 육체적으로 피곤해진 것도 사실.

효연이는 “길 가던 중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아시더라”며 “속소 인근에 사는 아저씨도 ‘효연이 운동하러 가냐’고 물어 깜짝 놀랐다”고 한다.

윤아는 “잠지 한 권 보는데 소녀시대가 몇번이나 나오더라”며 “올해 별자리 스타 쌍둥이자리에 네 사진이 있더라”고 웃었다.

소녀시대 사인 몇 장을 갖고 입대 하면 2년이 편하다는 우스갯소리로 나왔다.

멤버들은 “스타일리스트 동생이 사인 한 장에 휴가 하루를 받을 수 있다더라”며 “군인을 위한 사인을 정말 많

이 했다. 강타 선배 면회도 다녀왔는데 강타 선배님이 ‘왕이 됐다’고 좋아하시더라”고 또 ‘까르르’ 웃었다.

1월 ‘지’를 발표한 후 9주 연속 1위를 한 소녀시대가 5개월 만에 두번째 미니음반 ‘소원을 말해봐’로 돌아왔다.

멤버들이 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대화로 시작하는 ‘소원을 말해봐’는 일상에 지치고 자신감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소녀시대가 행운의 여신이 돼 자신감을 북돋는다는 내용.

제시카와 사이니의 운유가 듀엣한 랩 발라드곡 ‘1년 후

(後)’, 상큼한 유로 댄스곡 ‘에튀드(Etude)’등 수록곡들은 장르 폭이 넓다.

멤버들은 투애니원, 포미닛, 티아라 등 수많은 여성그룹이 나오는 ‘걸 그룹 대란’ 속에서 1위를 지켜내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고 했다.

“투애니원, 포미닛 등의 방송 무대도 쟁쟁했는데 노래가 신나고 의상도 화려했어요. 이번에 우리는 해군, 육군, 공군 등 제복 스타일 의상을 입는데 밋밋해보이면 어떡하죠? ‘지’로 9주 연속 가요순위 1위를 했기에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부담도 되고, 또 우리 기록을 우리가 깨고 싶기도 해요.”(수영, 씨니)

자리를 뜨기 전, 멤버들에게 “한가지씩 소원을 말해봐라”고 했다. 윤아는 “건강이 첫째이며, 좋아하는 사람들과 놀고 싶다”고, 효연과 수영은 “좋은 동반자를 만나 사랑하거나 결혼하고 싶다”고, 유리는 “소녀시대가 지지 않고 죽~ 갔으면”, 막내 서현은 “외동딸이어서 자립심이 부족한데 좀 더 성숙해지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을 전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종합매체 CBS

노컷뉴스는 CBS와 함께 만드는 무료 종합일간신문입니다

뉴스전화: 02-2377-8000

RADIO

종합매체 CBS

가톨릭방송, 전국총신 LBC

CBS 종합매체

060-600-1031

TV

종합매체 CBS